

「흑다리긴노린재」 발생증가, 반점미 피해우려

벼 알의 즙액을 빨아먹는 「흑다리긴노린재」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7월 26일 “시화호 인근지역의 진부벼 등 조생종벼를 조사한 결과 성충발생이 확인되고 있어 방제소홀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며 내륙지역에서도 더듬이 긴노린재 등이 발견됨에 따라 농작물병해충 발생정보 『주의보』를 발표하는 등 피해최소화를 위한 방제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벼에 피해를 주는 노린재류는 대부분 성충크기가 7mm 내외이며 약충(개미 같은 모양의 새끼)은 1~2mm정도로 매우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벼알의 즙액만을 빨아먹기 때문에 피해상황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이삭패기 시작할 때부터 이삭과 잎을 자세히 살펴 벌레가 보이면 냄새 확인 후 적용약제로 방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흑다리긴노린재는 2001년 김포의 쓰레기매립 예정지 인근 논에서 대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농업기술원 등 해충전문가의 정밀조사결과 화성, 시흥, 안산 등 서해안 바다매립지의 띠풀, 산조풀 등에서 증식한 후 벼이삭이 패기 시작할 때부터 논으로 이동, 벼알의 즙액을 빨아먹어 피해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해마다 조금씩 내륙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린재목에 속하는 곤충으로 5~6월 띠풀이나 산조풀, 왕포아풀 등 벼과 잡초에서 증식하여 7~8월 벼로 이동 후 다시 번식하므로 논에서 발생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인데 유숙기부터 황숙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준다. 지난해 화성 등 일부지역의 방제를 못한 논에서 벼 알에 상처를 주어 생김 반점미 피해율이 50% 이상 발생된 논도 있었다.

농진청,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첫 공시 1/4분기, 토양개량·작물생육용 등 17개 제품

국내 처음으로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 가능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이 공시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31일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요령에 따라 1/4분기 신청자재 총 201건을 심의, 이 중 17건을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는 지난 3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가 시행된 이래 첫 사례이다.

목록에 등재된 제품을 보면 작물생육용자재 3개를 비롯해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자재 6개, 작물병해관리용자재 5개, 작물충해관리용자재 3개 등이며 업체별로는 동부하이텍과 아리스타라이프 사이언스코리아가 각각 3개, 동부정밀화학 2개,

신임 농림부장관에 任祥奎씨

신 임 농림부 장관에
任祥奎 국무조정

실장(58)이 임명됐다.

지난 8월 8일 내정된

任신임 농림부장관은

재정경제원과 기획예산처

및 과학기술처등의 요직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이지만, 경제부처 출신으로는 비교적 농림부 관련 업무를 많이 담당해 왔고 농림부 직원과도 밀접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해 농정에 밝은 편이다.

신임 任장관은 또 경제기획원 재직시절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과 경제예산국장,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하면서 농업구조 개선에 대한 투융자재원확보를 앞장서 지원했다. 특히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재직시에는 참여정부의 농정근간인 농업·농촌중



합대책을 뒷받침하는 119조원 투융자계획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농림부 직원들은 신임 任장관이 그동안 농림부와 관련된 업무를 여러번 담당할 때 농정에 대한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며, 농림부 간부 직원들과도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참여정부 농정의 마무리작업에 적임이라고 평가하고, 폭넓은 식견과 타 부처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산적한 현안 타개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부인 유경희씨(53)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 프로필

△1949년 광주(58) △광주제일고 △서울대 금속공학과, 행정학과 △미국 시라큐스대 대학원(석사) △행정고시 17회 △재경원 물가정책과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과기부 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무조정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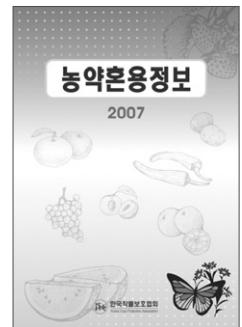
남해화학과 KG케미칼이 각각 1개, 미광이 3개, 신영아그로가 2개, 휴살림과 동우상사가 각각 1개씩이었다. 이는 신청건수 201건의 8.5%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로 163건은 미비된 서류와 시험 성적서 등을 보완하도록 조치했으며, 21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작물보호協, 「2007농약혼용정보」 책자 발행

농약의 효과적인 섞어쓰기를 위해 지난해 6년 만에 재 발간된데 이어 올해도 통합 농약혼용정보

책자가 발간돼 올바른 지도사업 및 농업인들의 약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는 지난 7월말 농약의 올바른 혼용으로 약해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일손 부족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그 동안 농약제조사별로 발간



바이엘, 「2007새봄맞이 이벤트」 당첨자 발표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대표이사 요 그 레바인)는 지난 8월 17일 자 사제품 및 홈페이지 홍보의 일환으로 지난 7월말까지 진행해 온 「2007 새봄맞이 이벤트」의 당첨자를 각각 발표하고 행사를 마쳤다.

지난 6월말로 종료된 첫 번째 이벤트 '톱스타를 찾아라'의 퀴즈응모자에게 주어지는 상 중 톱스타상은 최준연 외 9명에게 고급휴대용

계산기를, 행운상에는 박종용 외 9명에게 LG 생활건강 베스트 선물세트를, 그 외 응모자 전원에게는 참여상으로 각각 토시를 전달했다. 두 번째 이벤트인 수도용살충제 '사용 후기 공모전'에는 김길상 외 13명에게 고급 내비게이션을 전달하였으며 세 번째 이벤트인 '리전트 삼행시 짓기' 참가자 중 최진영 외 6명에게는 고급파커 볼펜 2종세트를 각각 전달했다.

해 오던 각 회사별 혼용가부표를 취합 정리, 적용 작물 및 약제를 대폭 보완한 「2007농약혼용정보(국배판, 316면)」 책자를 발간하고 관련기관 및 시판상, 농협 등에 배부했다.

이번 통합농약혼용정보 책자는 지난 2005년 10월, 농림부가 농약 섞어쓰기에 있어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작물보호협회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협의회를 거쳐 작성, 배부키로 결정함에 따라 2년 연속 제작된 것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약사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기술」 책자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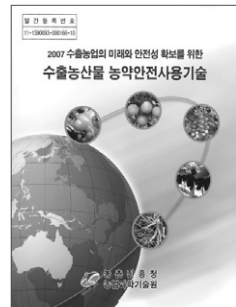
국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증보된 「2007수출농업의 미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기술」 책자가 발간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이 지난 2003년부터 일본,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농약등록현황과

잔류허용기준, 규제내용 등에 관한 최신 자료를 수집, 분류하여 만든 이 책자는 올해도 기존 17작물과 더불어 미국 수출용 파프리카 지침과 520여

신규 등록농약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특히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농약명칭 한글표준화지침에 따라 새로운 표기법의 농약품목명을 수록함으로써 수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단체와 기관에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여 우리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촉진에도 크게 기여하여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

- (주)동방아그로 <승진>△공장장 염병춘 업무
부사장 